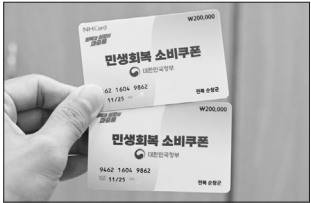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시

순창군, 9월 12일까지 1차 지급 신청… 군민 생활 안정·소비 촉진 도모

순창군이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군민 2만 6,792명이며,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군민은 1인당 20만 원(기본 15만 원과 농촌지역 추가 5만 원 포함), 차상위 계층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5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 신청 시에는 무기명 선불카드가 즉시 지급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에,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

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해당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순창군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식당, 카페, 미용실, 안경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사업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군민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책으로 작용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11), 국민콜센터(110),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호우 피해 신속 복구·지원”

심민 임실군수, 현장 피해 상황 점검·응급 복구 지시

임실군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심 민 군수가 주말 동안 직접 피해 현장을 다니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진두지휘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심 군수는 21일 간부회의에서 “이번 호우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응급 복구와 함께 농지 및 가옥 침수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어 “이번 폭우 시 문제가 된 우수관로 등의 시설을 정비하고, 하천 변, 연되어 있으며, 주민 누구나 건강·영양에 문제가 없도록 구성됐다. 또한 어린이건강체합관, 비만관리프로그램, 한의약 기공체조 등 생애주기별 건강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슬로우 조깅·걷기 동아리 등 주민 주도형 건강실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전대책본부 비상 1·2단계를 단계적으로 가동하고, 침수와 산사태 등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호우 대응에 나섰다. 이번 호우 기간 중 임실군의 평균 누적 강우량은 233mm, 덕치면에서는 최대 281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도로 배수 불량으로 인해 임실을 두 곡리 국도 17호선과 관촌면 예원대 사거리 등 일부 도로가 침수됐으며, 토사유출로 인해 지방도의 낙석 방지책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농축산 분야에서도 총 7.2ha의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및 가축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군은 저지대 및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신속한 통제와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및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지원센터 체력단련실 운영… 이용자 모집

남원시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체력단련실 이용자 모집과 함께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한 소생활권 건강관리 거점시설로, 원스톱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역 건강지표 분석과 시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특성과 시민의 건강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전 조사와 함께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주차장과 주민 친화 공간인 쉼터공원 부

지를 추가로 확보하며 약 19억 원의 시비를 증액,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강관리 인프라를 갖췄다. 센터에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체성분 분석기(인바디) 등 기초 건강측정이 가능한 통합관리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민 누구나 건강·영양·운동 상담을 통해 손쉽게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어린이건강체합관, 비만관리프로그램, 한의약 기공체조 등 생애주기별 건강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슬로우 조깅·걷기 동아리 등 주민 주도형 건강실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해외영어캠프 참가 학생들, 뉴질랜드로 출국

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은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참가 학생들이 21일 뉴질랜드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관내 중학교 2학년 26명이 오는 8월 7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머레이스베이 중학교에서 어학연수 및 다양한 현지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현지 공립학교 정규수업에 참여하고, 뉴질랜드 가정에서 홈스테이로 실생활 영어를 익히고 문화교류도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아동 물놀이장’ 26일 개장

순창군이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1일간 향토화관 야외무대 광장에 여름철 아동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장한다.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물놀이장은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교 생까지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단순한 물놀이 공간을 넘어 여름 축제 장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주요 시설로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에어 풀장,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그늘막 쉼터,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보호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미래를 여는 에듀테크의 날 운영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순창 관내 초·중학교 강당에서 ‘2025 미래를 여는 에듀테크의 날’ 행사가 운영중이다. 행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교육 혁신을 실현하고자 AI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통해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디지털 리더십 등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관내 초·중 10개교 학생 754



명이 참여해 각 학교 강당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체험했으며 도 사별지 학교들은 중심학교를 거점으로 여러개 학교가 권역별로 행사를 진행한 점이 뜻깊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온라인예약시스템 전면 시행

순창소방서는 21일부터 소방안전교육 예약 방식을 기존 유선 접수에서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 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과 교육 대상 기관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모든 소방서는 유선전화를 통해 소방안전교육을 신청받아 왔으나, 예약 증가에 따라 접수 혼선과 시간 지연 등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일정 확인부터 신청·접수·확인까지의 전 과정을 간편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로운 온라인 예약은 순창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교육일자와 시간을 선택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예약 후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수결과 및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예약 시스템 및 교육 관련 문의는 순창소방서 대응예방과(063-650-9242)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소방서 여성이용소방대 어르신 대상 삼계탕 나눔

임실소방서(서장 김삼곤)는 임실을 여성이용소방대(대장 정미애)가 지난 18일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여해 따뜻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범죄예방 임실지구(회장 김병이)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임실을 여성이용소방대와 임실군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300여 명의 어르신께 삼계탕을 대접했다. 여성이용소방대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음식을 배식하고 식사를 돕는 등 지역사회에 나눔과 온정을 실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